

2024
고2 문학
미래엔

2024 고2 문학 미래엔 3(2)(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단순히 작품 전체의 특징을 묻기도 하지만, 특정한 연 또는 특정한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묻기도 하며, 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묻기도 합니다. 따라서 표현상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화자의 심리)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연결 지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
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
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
고 가네.

㉢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
폄나 보다.

㉤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답 구조와 대칭 구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3연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국권 상실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③ 4연, 5연, 8연에서는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국토와의 친화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9연에서는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현실을 재인식하며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11연에서는 시상 전환을 통해 절망적 현실 재인식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2. 윗글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정서는 점진적으로 하강하다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 ②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봄날의 자연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③ 1연과 11연의 질문과 대답 형식은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 ④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사용해 국토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국토의 일부인 ‘들’을 국토 전체에 비유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식민지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평화로운 자연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환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화자에게 현실을 잊기 위해 들어간 자연 역시 부정적인 현실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연에서 현실로 돌아올 때 더욱 뚜렷하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 ① ㉠: 의문형 진술을 통해 국권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국권을 빼앗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화자의 신념을 방해하는 부정적 세력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현실을 잊고 봄 경치를 즐기는 화자 자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에 비유하고 있다.
- ⑤ ㉤: 절망적 현실을 재인식함으로써 느끼는 처절한 슬픔을 단정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
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
고 가네.

나비 제비야 꺾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나는 온몸에 땀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
 뻘나 보다.

㉡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국토를 상실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보리밭을 의인화하여 국토에 대한 친밀감과 국토에 동화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국토를 모성 이미지로 표현하여 국토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역설법을 사용하여 기대와 기대의 좌절로 인한 혼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대유법을 사용하여 국권을 상실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처절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5. 윗글의 특징과 그 특징이 드러나는 시 구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질문-대답 형식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 1연과 9연
- ② 대상의 일부분을 통해 전체를 비유하는 대유법을 사용함. -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③ 모순된 감정을 나란히 제시하는 역설법을 사용함. -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자
- ④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함. -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 ⑤ 국토의 부드러움과 풍요를 표현하기 위해 여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함. -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신유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표현상의 특징,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외에는 내재적,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 화자의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내재적, 외재적 관점 문제와 화자의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문제도 결국 표현상 특징과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하여 정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작품을 지엽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썼지 마라 웃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
 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
 뻘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
 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A] 나는 온몸에 땀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
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수미상관식 구성으로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ㄴ.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태도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 ㄷ. 음성 상징어를 통해 국토의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ㄹ. 대칭 구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ㅁ.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동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한 정서적 불균형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연과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후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8.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의 일부로서 보편성을 지니며,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결과로서 특수성을 갖는다.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 이 둘을 함께 고려하면 문학 작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감상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①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보편성을 지닌다.
- ② 현실의 문제를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점에서 세계 문학의 일부로서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③ ‘아주까리기름’, ‘가르마’ 등 한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특수성을 지닌다.
- ④ 일제 강점기 현실이라는 한민족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⑤ 적절한 어조와 수사법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9. 윗글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어떤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가?
- ②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 ③ 시적 화자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 ④ 시적 화자의 인간 존재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는 무엇인가?
- ⑤ 시적 화자는 무엇을 느끼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10. 윗글을 내재적 비평의 관점에서 감상하고 있는 것은?

- ① 윗글에서 ‘빼앗긴 들’은 망국의 국토를, ‘봄’은 조국 광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윗글을 읽으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 ③ 윗글은 물음과 대답이라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어 구성상 안정감과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어.
- ④ 나는 윗글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조국을 빼앗긴 현실을 올바른 정신으로 각성하고 있어야 하잖아.
- ⑤ 윗글의 작가는 원래 낭만주의적인 경향의 시를 써 왔기 때문에 낭만주의 특유의 몽환적 경향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야.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뻘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보고 싶다.

㉢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나는 온몸에 땀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1920년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여 일제의 국권 강탈을 비판하고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 예전에는 우리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빼앗겼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국토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우리 국토에서 직접 노동을 하며 활력 있게 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 ③ ㉢: 아름다운 봄을 보며 느끼는 기쁨과 국토를 잃었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슬픔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④ ㉡: 망국의 한으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내면적 갈등을 동작으로 형상화하였다.
- ⑤ ㉢: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재확인하며 절망적 현실에 좌절해버린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이상화가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쓴 저항시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은 이 시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이 시의 배경은 단연 '봄'이고 시적 자아가 그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나, 그것은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며 착각 속의 '봄'일 뿐이다. 시적 자아가 원하는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고, '들판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올 수도 없다. 시적 화자가 제시한 질문의 답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화자는 '봄'을 기다리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회의하고 있다. 일제의 탄압이 그만큼 혹독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작품은 이처럼 국토를 빼앗긴 현실에서 느끼는 비애와 울분이 화사한 봄 들판의 정경과 대비되면서 강렬한 독백의 어투를 통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① 1연과 11연은 각각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수미상관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혹독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②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은 화사한 봄 들판의 정경에 대한 정서와 국토를 빼앗긴 현실에서 느끼는 비애가 뒤섞여 있는 화자의 내적 혼란 상태를 나타낸다.
- ③ '내 혼'에 대해서 '우스웁다'라는 표현은 자연 현상일 뿐인 착각 속의 봄으로부터 비롯된 화자의 아이와 같은 철없는 행동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자연물의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 속에 화자의 봄을 맞이한 들판에서 만끽하는 기쁨이 드러나며, 국토에 대한 애정이 적극적 행동에 대한 소망으로 심화되어 나타난다.
- ⑤ 반영론적 관점에서 계절적 배경인 봄은 광복을 상징하며, 봄이 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통해 민족 현실에 경각심을 갖고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저항 의지와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격정적 어조로 나타내어 저항시의 면모를 보인다.

13. 윗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고운 비'는 자연에 동화된 시적 화자를 의미한다.
- ② 봄을 맞이했으나, 지금은 남의 땅이 된 빼앗긴 들을 걷고 있다.
- ③ 한겨울의 고된 상황 속에서 다가올 따스한 봄을 염원하고 있다.
- ④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시적 화자의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시적 화자가 직접 바라는 바를 언급하고 있어 195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과 시대적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14. ㉠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항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보기>

ㄱ. '서로 마주 닿다'의 의미를 가진다.
 ㄴ. '싸움이나 내기 따위에서 서로 상대하여 겨루다'라는 뜻이다.
 ㄷ. '맞붙은 곳'이 의미하는 목적어는 자유로운 공간, 희망의 세계를 의미한다.
 ㄹ. '맞붙은'은 방언이며, 동시에 향토적 시어에 해당한다.
 ㅁ. '맞붙은'을 통해 그 당시 전통적 여인들이 농사에 참여하였음을 유추하고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
 갑다 웃네.

㉢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
 뻘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
 고 가네.

㉣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가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나는 온몸에 땀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
 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5. 윗글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과 대답 형식의 수미상관 구조를 지니고 있다.
- ② 상징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직유적 표현이 쓰인 부분은 모두 여성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인화의 표현법을 통하여 국권 상실의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16. ㉠~㉣ 중 화자의 자조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은 곳으로
 ㉠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
 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4연에서는 바람과 종다리를, 5연에서는 보리발을 의인화하였지만 8연에서는 '흙'을 '젓가슴'에 비유한 직유법을 사용했을 뿐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① 1연과 11연의 문답 구조, 2~10연과 3~9연의 대칭 구조를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였고, 국권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9연의 3행에서 식민지 현실을 재인식하며 '우스웁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11연의 '그러나'에서 시상이 전환되며 '봄조차 빼앗기겠'다는 절망적 현실을 인식하며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2. 정답 ①

1연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던 화자의 정서는 3연에서 하강하고, 4~8연에서 다시 상승하던 화자의 정서는 9연에서 현실을 재인식함으로써 다시 하강한다. 그 이후 혼란한 감정을 나타내다가 절망적인 현실 인식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 ② 하늘, 들, 바람, 종다리, 보리발 등을 의인화하여 봄날의 자연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③ 1~11연은 '질문-대답' 형식의 수미상관 형식을 이루며, 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국권 회복의 염원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는 국토의 일부인 '들'을 국토 전체에 비유하는 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3. 정답 ③

'깎치지 마라'는 '재촉하지 마라'는 의미로, '나비 제비'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가 담긴 구절은 아니다.

- ① '봄(독립)은 오는가?'와 같은 의문형 진술을 통해 국권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입술을 다문 하늘과 들'은 국권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는 구절이다.

④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은 국권 피탈의 현실에서도 봄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강가에 나온 아이'에 비유하고 있다.

⑤ 작품의 마지막 연에서는 빼앗긴 조국에 대한 절망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4. 정답 ④

역설법을 사용하여 혼란한 감정을 드러내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는 봄이 온 들판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국권 상실의 비애 사이에서의 감정이지 기대와 기대의 좌절로 인한 감정이 아니다.

- ①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에 의문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토를 상실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보리발을 '너'라고 표현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국토에 동화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국토의 풍요로움을 모성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다.
- ⑤ 국토의 일부인 '들'을 국토 전체에 비유하는 대유법을 사용하여 국권을 상실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처절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④

사람이 아닌 보리발을 '너'로 지칭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① 질문-대답 형식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1연과 11연이다.
- ② 대상의 일부분을 통해 전체를 비유하는 대유법을 사용하는 부분은 국토의 일부인 '들'을 국토 전체에 비유하는 부분이다.
- ③ 모순된 감정을 나란히 제시하는 역설법을 사용한 부분은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이다.
- ⑤ 국토의 부드러움과 풍요를 표현하기 위해 여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부분은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이다.

6. [정답] ③

- ㄱ. 1-11연은 '질문-대답' 형식의 수미상관 형식을 이루며, 시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 ㄴ. 2-10연과 3-9연의 대칭 구조를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ㄷ. '푸른 하늘 푸른 들'과 같은 표현에 시각적 심상이, '도랑'의 '젓먹이 달래는 노래'와 같은 표현에 청각적 심상이, '푸른 웃음'과 같은 표현에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사용되었다.
- ㄴ. 윗글은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지도 않았고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
- ㄷ. 윗글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7. [정답] ①

-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는 9연에 나타나 있다. [A]에서는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동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푸른 웃음 푸른 설움'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한 정서적 불균형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연과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뜻내'와 같은 후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푸른 웃음'에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푸른 웃음 푸른 설움'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된 감정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8. [정답] ⑤

- 적절한 어조와 수사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세계 문학의 보편적 특징이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라 볼 수 없다.
- ① '자유에 대한 갈망'은 세계 문학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현실의 문제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세계 문학의 보편적 특징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아주까리기름', '가르마'와 같은 한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일제 강점기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결과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9. [정답] ④

- 윗글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시적 화자는 '봄'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독립이 이루어진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
- ② 시적 화자는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들을 걷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국권을 빼앗긴 현실을 인식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 ⑤ 시적 화자는 봄이 찾아온 조국의 들판에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 애정과 남의 땅이 된 조국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현실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0. [정답] ③

- 내재적 관점은 작품의 구조 및 표현법과 같은 작품 내적인 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수미상관과 같은 표현법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내재적 관점(내재적 비평)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①, ②, ④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반영론적 관점 혹은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데, 반영론적 관점과 효용론적 관점은 모두 작품 외적인 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 ⑤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하며, 이는 작품 외적인 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11. [정답] ①

- ㉠에는 국권을 빼앗긴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11연의 절망적 태도를 통해 화자가 이러한 국권의 상실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직접 호미질을 하며 활력 있게 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며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는 봄이 찾아온 조국의 들판에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 애정과 남의 땅이 된 조국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일어나는 상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

다.

④ ㉔에는 망국의 한으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불균형이 '다리를 절며'라는 구절을 통해 동작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㉔에는 국권을 상실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처절한 슬픔, 절망감이 나타나 있다.

12. 정답 ⑤

윗글에서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격정적 어조로 나타내는 부분은 없다. 윗글의 화자는 국권 피탈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여기고 있다.

① 1-11연은 '질문-대답' 형식의 수미상관 형식을 이루며, 국권 피탈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절망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② '푸른 웃음 푸른 설움'에는 봄이 온 들판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국권 상실의 비애가 뒤섞인 화자의 혼란한 감정이 나타나 있다.

③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연 현상으로서의 봄을 맞이한 국토에 대해 즐거워하는 화자 자신의 철없는 행동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우스웁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④ 윗글에는 봄을 맞이한 자연물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화자의 기쁨이 나타나 있으며, 국토에 대한 애정이 '하늘'과 '들'이 '말'을 해 주는 적극적 행동에 대한 소망으로 심화되어 나타나 있다.

13. 정답 ②

화자는 자연적으로는 봄을 맞이했으나, 지금은 남의 땅이 된 빼앗긴 들을 걷고 있다.

① '고운 비'는 '땅'에 생기를 주는 존재이며, 이를 시적 화자로 볼 수는 없다.

③ 윗글의 화자는 봄을 맞이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윗글에서 한겨울의 고된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화자의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에 창작된 작품이다.

14. 정답 ②

ㄱ. 윗글에 사용된 '맞붙은'은 '서로 마주 닿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ㄴ. ㉔가 '싸움이나 내기 따위에서 서로 상대하여 겨루다'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ㄷ. '맞붙은 곳'은 목적어가 아닌 부사어이다.

ㄹ. ㉔는 방언도 아니고 향토적 시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ㅁ. ㉔를 통해 전통적 여인들이 농사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15. 정답 ③

'가르마 같은 논길', '종다리는~아씨같이', '삼단 같은 머리',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에는 여성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성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① 1연과 11연은 '질문-대답' 형식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② '빼앗긴 들'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국권을 빼앗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라는 부분에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화자는 '하늘'과 '들'에게 '말을 해' 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권 상실의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정답 ⑤

국권이 피탈된 현실에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즐겁게 날뛰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①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끌려 황홀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침묵하는 조국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③ 국토에 대한 애정을 여성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④ 국토의 모든 자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17. 정답 ②

윗글에서는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색채 대비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①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